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국민의힘 박은식·개혁신당 장도국·진보당 김미화·무소속 김성환 후보(왼쪽부터)가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정당 후보측 제공)

안도걸 “실력·성과 승부” vs 김성환 “주민 선택 받을 것”

4·10 총선 광주 동남을 지역구는 5명의 후보들이 나서면서 치열한 본선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환 후보의 한판 승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돼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김 후보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 앞서 진행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민심 이반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박은식 후보가 표발을 갈고 있고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 진보당 김미화 후보 등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남을 지역구는 구도심 인구 감소와 쇠락한 원도심 회복 등이 주요 현안으

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후보는 지난해 5월 ‘안도걸 경제연구소’를 개소해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을 최우선으로 봤다. 무능·무도·무책입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정 실패 반박을 강력한 견제 세력 구축으로 맞겠다는 각오다.

그의 공약은 ▲국토 대개조 전략 ▲광주 원도심 인공지능 벨리 구축 ▲광주-화순 연계 바이오·메디컬 융합벨트 조성 ▲글로벌 명품 문화관광타운 건설 등이다.

안 후보는 “34년간 경제 관료로서 검증된 정책 역량을 심분 발휘해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부터 실력과 성과로 승부하는 혁신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주당이 망가진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

4·10 총선 격전지 광주 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나라 경제·민생 살리는 ‘큰 일꾼’ 되겠다”

무소속 김성환 “이제는 바뀌어야...실력있는 新정치” 약속

국힘 박은식·개혁신당 장도국·진보 김미화 박당 표심 공략

고 정권 교체에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선 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지낸 김성환 후보는 지난해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컷오프됐다. 이에 민주당을 탈당, 주민의 선택을 직접 받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회의원 특권 해소 등 정치 개혁을 총선 전략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주차장 등 생활편의 확보 ▲양림·사직·총장·동명동 통합관광벨트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소태C 진입 정체 해소 조치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는 정치, 민생에는 관심 없고 싸움질만 하는 정치, 존재감 없는 정치, 양극화, 저출산, 경제 침체, 안보 불안 등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력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내과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는 당의 제안으로 입당해 이번 총선에선 인재영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힘있는 여당이 열악한 광주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의사 출신인 만큼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 개혁을 전략으로 세웠다.

박 후보는 ▲충장로에서 출발하는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코스트코·이케아 유치 ▲전남대병원·조선대 병원 증축 지원 통한 세계적 바이오헬스기업 육성 ▲그린벨트 대폭 해제 골포장·파크골프장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보수당의 불모지에서 당선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큰 변화”라며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광주에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우로 활동했던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는 ▲공공기여금 활용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무등산 데크길 조

성과 전기버스 운행 추진 ▲국립도서관 분관 설치 ▲평화미술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장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권력 다툼과 이념 갈등 속에서 정치는 실종됐다”며 “반듯한 이력은 없지만 반듯한 정치, 결코 가볍지 않은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 출신인 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공약으로 ▲중입자 가속기 유치 메디컬시티 완성 ▲0세부터 100세까지 돌봄 국가 책임 ▲광주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체계 완성 ▲생계 걱정 없는 창작과 공연의 도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고 싶다”며 “28년간 간호사답게 국회에 입성하면 ‘0세부터 100세까지 국가 돌봄’에 대한 입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김지사 “국립의과대학 공모 공정하게 추진”

“모든 도민의 의대...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은 전 도민의 의과대학이 자 전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민 뜻을 잘 살피고 협조를 구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1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4월 정례회를 통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의

대 신설 등 10개 이상 지역 현안을 직접 말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같이 밝혔다.

특히 국립의과대학 공모와 관련, 그는 “당초 통합 의과대학을 생각했는데 대학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서 공모를 하게 됐다”며 “전 도민의 건강과 전남의

미래 발전, 의료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많이 고심해서 추진, 모처럼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주문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관련, 김 지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개념 고속도로로서 앞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역할도 기대된다”며 “도에서 기초 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중양부처에서 자꾸 고속화철도를 언급하는데 대통령이 고속철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30분 이상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수당 20만원 지급 등 인구정책을 파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실행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출생수당 지급이 국가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발을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법정 토론회 불참’ 조인철 과태료 1천만원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 의결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일 “법정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후보(서구갑)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생방송 토론회 방송 시작 1시간30분 전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불참을 통보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의2 제4항에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인정되는 불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선강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0%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읍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상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등센터별지점 062)361-4472~4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서광주농협